자 료 집

전라북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 -






2010. 03

전북발전연구원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자 료 집

전라북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 -

2010. 03

전북발전연구원
JEONBUK DEVELOPMENT INSTITUTE

전라북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본 토론회를 통해 각계각층 전문가의 전문지식과 실무자 등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전라북도의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Ⅰ 행사개요

▢ 주　　제 : **전라북도 청년일자리 창출 방안**

▢ 일　　정 : 2010년 **3**월 **12**일(금) 15:00-17:00,

▢ 장　　소 : 전북도청 **소회의실** (12층)

▢ 참 석 자 : **도내·외 전문가**(발제자, 토론자), **전북도청**, **전북발전연구원**

▢ 발제 및 토론

Ⅱ 프로그램

■ 좌장: **송 영 남** (전북대학교 교수)

시 간	구 분	내 용
15:00-15:10 (10`)	**개 회**	**개회, 상견례**
15:10-16:30 (80`)	**주제발표 1**	발 표 자: **최 창 곤** (교수, 전북대 경제학과) 제 목: **전라북도 청년 실업 해소 방안** 지정토론: **정수진** (교수, 원광대학교) **최창진** (전라북도 도청 일자리창출과)
	주제발표 2	발 표 자: **강 영 숙** (교수, 군산대학교 사회복지과) 제 목: **청년 일자리, 어떻게 할 것인가** 지정토론: **김병수** (이사, 전통문화사랑모임) **송영남** (교수, 전북대학교)
16:30-17:00 (30`)	**종합토론**	**종합토론 및 폐회**

전라북도 청년 실업 해소 방안

1

최 창 곤 (교수, 전북대 경제학과)

지정토론: **정수진** (교수, 원광대학교)
최창진 (전라북도 도청 일자리창출과)

Ⅰ. 서 언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자리 부족 및 높은 실업이 중요한 경제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중에서도 청년들의 실업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전북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가 지역경제의 중요한 현안이 되었다. 본 연구는 전북지역에서 청년실업문제의 현황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장에서 전북지역 청년 노동시장의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특징을 정리하고 Ⅲ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제시한다.

Ⅱ. 전북지역 청년노동시장

2.1 전북지역노동시장의 현황: 경활, 고용률 및 실업율

〈표 1〉 전국의 경제활동인구

(단위: 천명, %)

연령	항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5~19세	15세이상 인구	3,769	3,552	3,336	3,165	3,070	3,046	3,102	3,202	3,238	3,284
	경제활동 인구	454	417	356	312	301	278	234	232	212	203
	비경제활동인구	3,314	3,134	2,981	2,853	2,770	2,768	2,868	2,970	3,026	3,082
	경제활동 참가율	12	11.7	10.7	9.9	9.8	9.1	7.5	7.3	6.5	6.2
	고용률	10.3	10.1	9.4	8.6	8.4	8	6.7	6.6	5.9	5.4
20~29세	15세이상 인구	7,474	7,401	7,315	7,203	7,070	6,874	6,741	6,653	6,584	6,496
	경제활동 인구	4,854	4,810	4,805	4,695	4,689	4,559	4,401	4,298	4,187	4,101
	비경제활동인구	2,620	2,591	2,511	2,508	2,381	2,316	2,341	2,355	2,397	2,395
	경제활동 참가율	64.9	65	65.7	65.2	66.3	66.3	65.3	64.6	63.6	63.1
	고용률	60.1	60.2	61.3	60.2	61.1	61.2	60.2	60	59.1	5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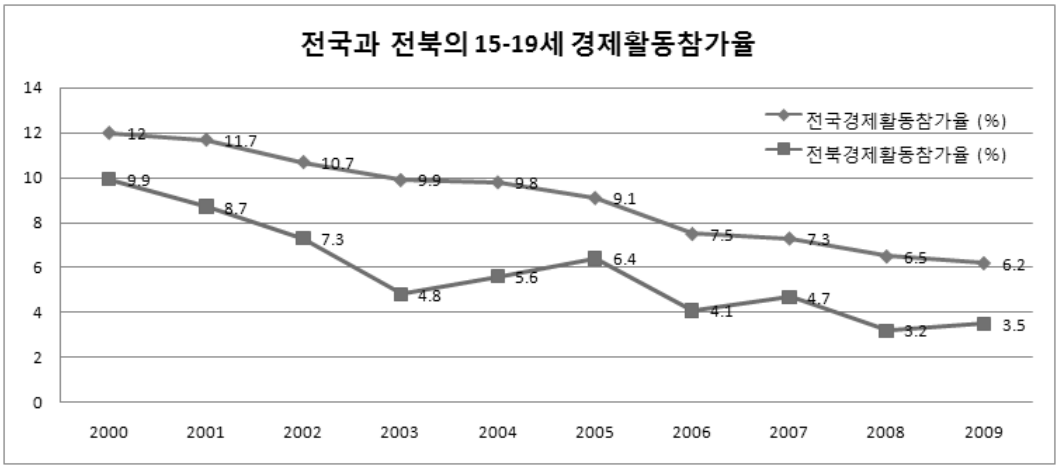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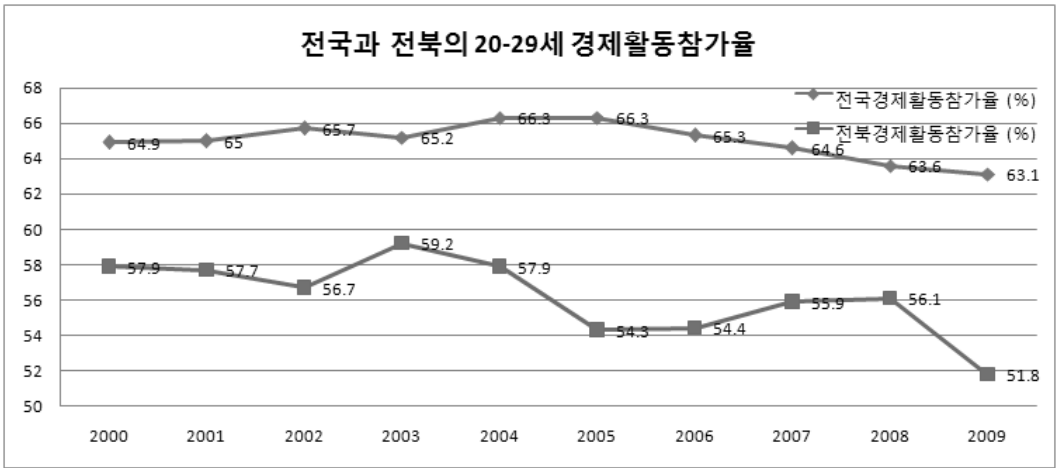
〈표 2〉 전북의 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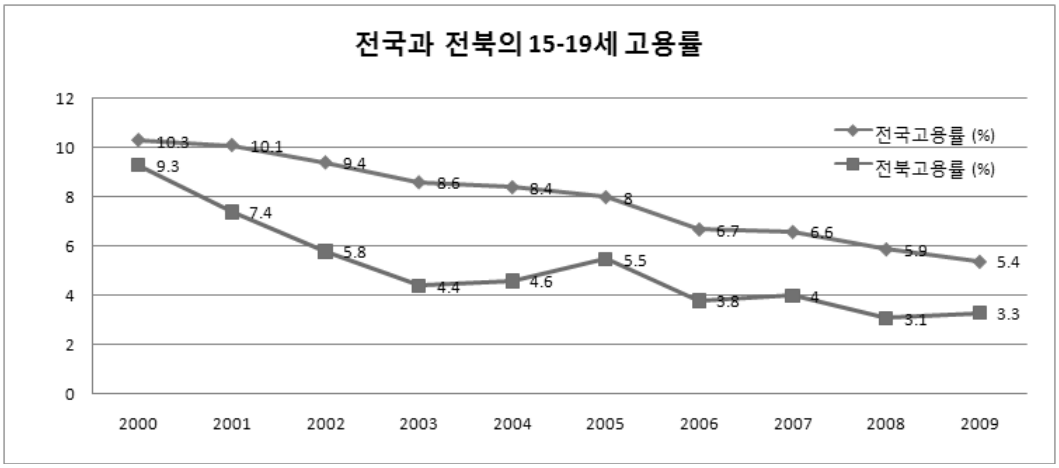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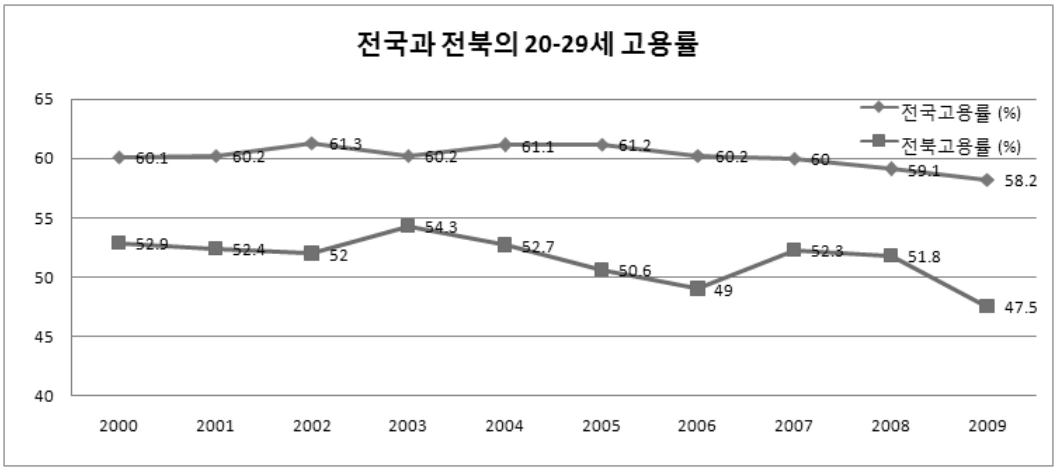
연령	항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15~19세	15세이상 인구	162	149	137	126	121	118	118	119	121	122
	경제활동 인구	16	13	10	6	7	8	5	6	4	4
	비경제활동인구	146	137	127	120	114	110	113	114	117	118
	경제활동 참가율	9.9	8.7	7.3	4.8	5.6	6.4	4.1	4.7	3.2	3.5
	고용률	9.3	7.4	5.8	4.4	4.6	5.5	3.8	4	3.1	3.3
20~29세	15세이상 인구	278	267	254	239	224	207	194	182	180	178
	경제활동 인구	161	154	144	142	130	112	106	102	101	92
	비경제활동인구	117	113	111	98	94	95	89	80	79	86
	경제활동 참가율	57.9	57.7	56.7	59.2	57.9	54.3	54.4	55.9	56.1	51.8
	고용률	52.9	52.4	52	54.3	52.7	50.6	49	52.3	51.8	47.5

자료 : 통계청




전국과 전북의 20-29세 경제활동참가율
전국경제활동참가율 (%)
전북경제활동참가율 (%)
68
66
64
62
60
58
56
54
52
50
64.9
65
65.7
65.2
66.3
66.3
65.3
64.6
63.6
63.1
57.9
57.7
56.7
59.2
57.9
54.3
54.4
55.9
56.1
51.8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국과 전북의 15-19세 고용률
전국고용률 (%)
전북고용률 (%)
12
10
8
6
4
2
0
10.3
10.1
9.4
8.6
8.4
8
6.7
6.6
5.9
5.4
9.3
7.4
5.8
4.4
4.6
5.5
3.8
4
3.1
3.3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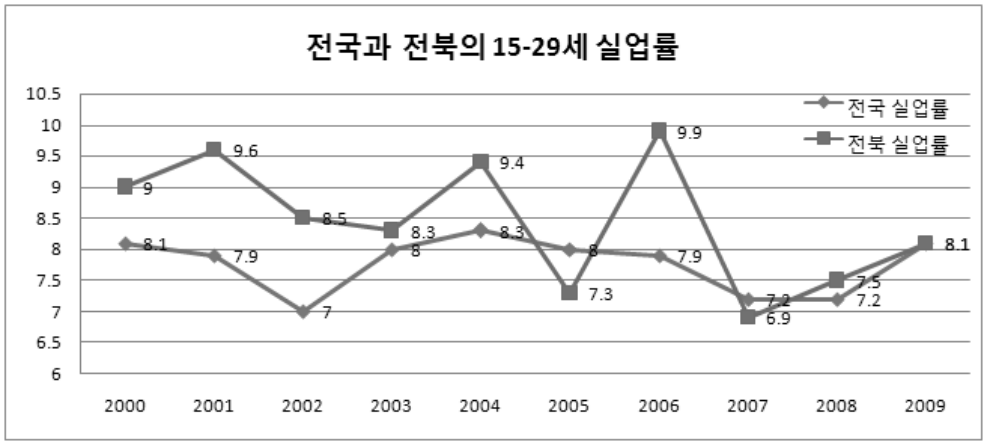

전국과 전북의 20-29세 고용률
전국고용률 (%)
전북고용률 (%)
65
60
55
50
45
40
60.1
60.2
61.3
60.2
61.1
61.2
60.2
60
59.1
58.2
52.9
52.4
52
54.3
52.7
50.6
49
52.3
51.8
47.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표 3〉 전국과 전북의 실업률

(단위 : %)

	항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국	계	4.4	4	3.3	3.6	3.7	3.7	3.5	3.2	3.2	3.6
	15 - 29세	8.1	7.9	7	8	8.3	8	7.9	7.2	7.2	8.1
전북	계	3.1	3.1	2.5	2.7	2.7	2.5	2.5	2.3	2.2	1.9
	15 - 29세	9	9.6	8.5	8.3	9.4	7.3	9.9	6.9	7.5	8.1

자료 : 통계청



2.2 전북지역 청년층 실업률의 재해석

전북지역에서 실업률과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먼저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전국평균에 비하여 낮지만 실업률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통계만을 보면 실업률이 심각한 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논의는 전북지역 고용문제의 다른 측면을 시사한다. 이러한 관점은 각 통계의 개념을 보면 수정이 필요하다. 개념상 실업률은 고용률과는 역의 관계에 있지만 경제활동참가율과는 정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북지역은 고용률이 낮아서 실업률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야 하겠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음으로서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실업률의 통계로 보면 전북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실업문제가 심각하지 않지만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고려하면 낮은 실업률은 일자리문제를 과소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만일 전북지역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지역만큼 높다는 가정하에 실업률을 추정하여 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전북지역에서 다른 지역과 같은 수준의 경제활동을 한다면 15- 19세의 경우 실업률은 전국평균에 비하여 4-5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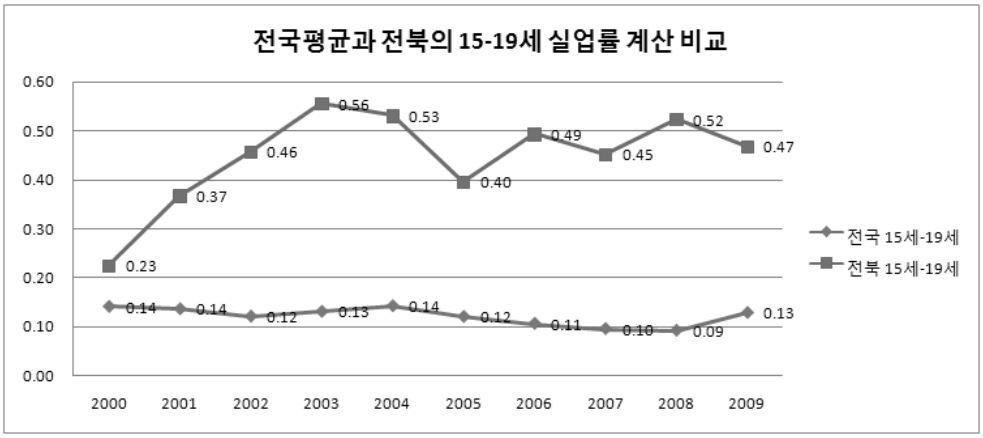
정도 높다는 것을 알 수있다. 20-29세의 경우 그 정도는 조금 약하지만 약 3 배정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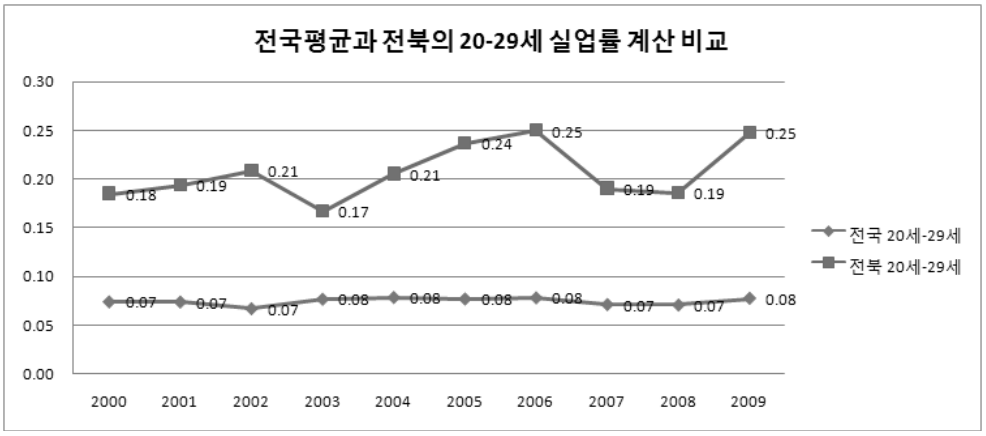
〈표 4〉 전북의 실업률계산

(단위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국	15세-19세	0.14	0.14	0.12	0.13	0.14	0.12	0.11	0.10	0.09	0.13
	20세-29세	0.07	0.07	0.07	0.08	0.08	0.08	0.08	0.07	0.07	0.08
전북	15세-19세	0.23	0.37	0.46	0.56	0.53	0.40	0.49	0.45	0.52	0.47
	20세-29세	0.18	0.19	0.21	0.17	0.21	0.24	0.25	0.19	0.19	0.25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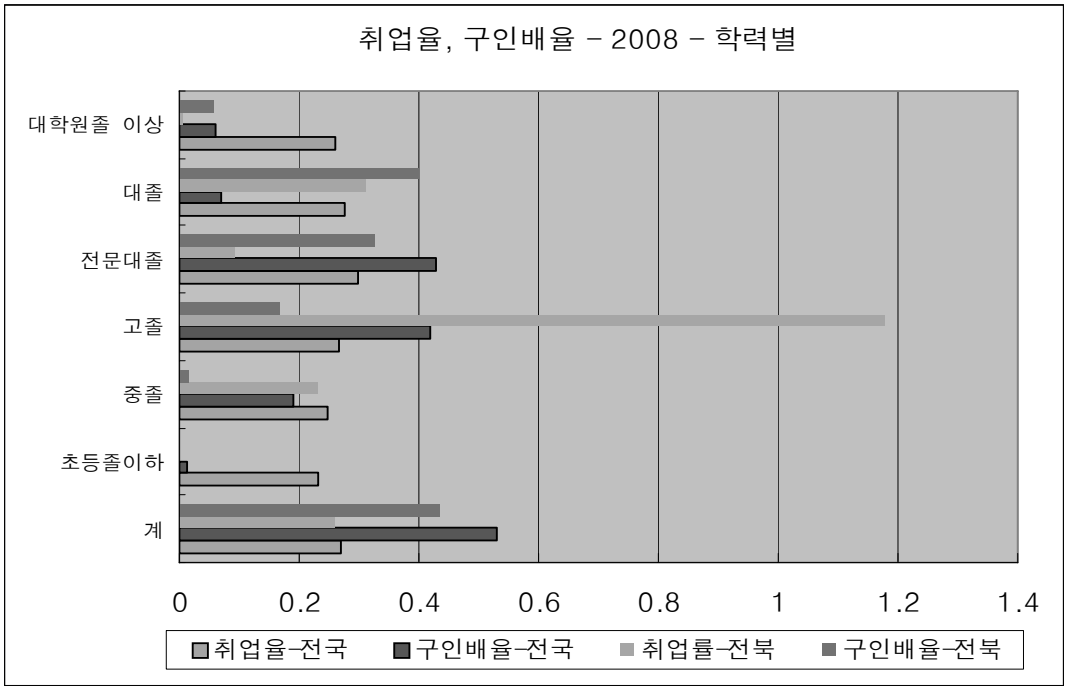




2.2 구인구직배율의 특징

(1) 학력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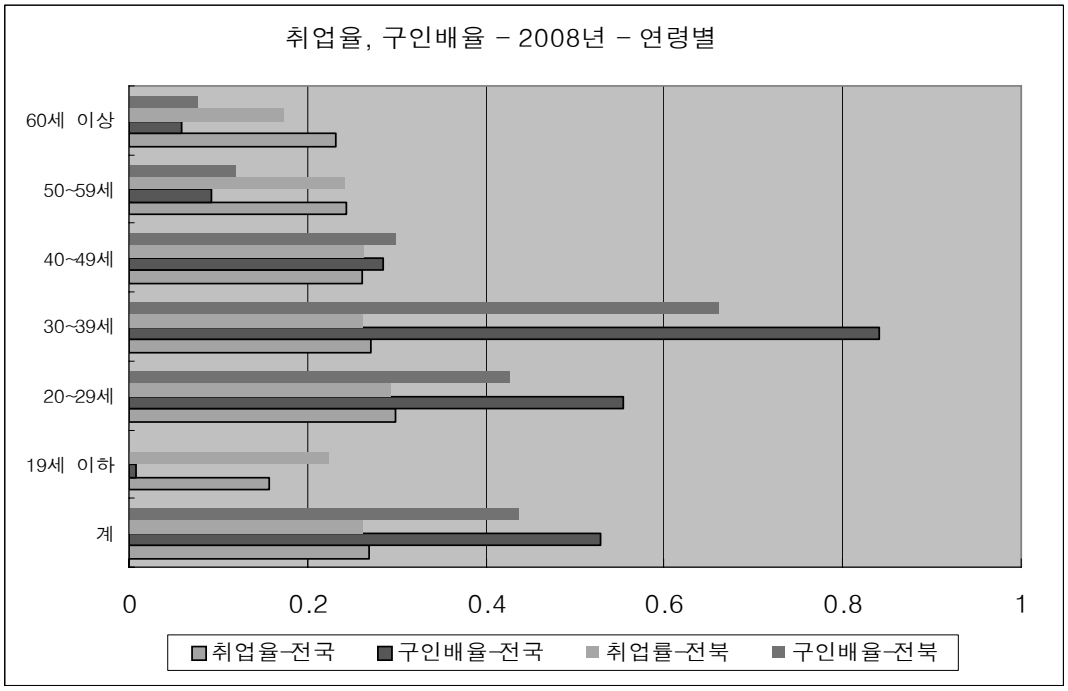
전북전체로는 전국에 비하여 대졸에 대한 구인배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고졸에 대한 구인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 취업률은 고졸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다음이 대졸이다. 즉, 대졸의 경우 구인배율은 높은데 취업률은 낮다는 것은 일자리 결합(Job-Matching) 과정이 효율적이 아님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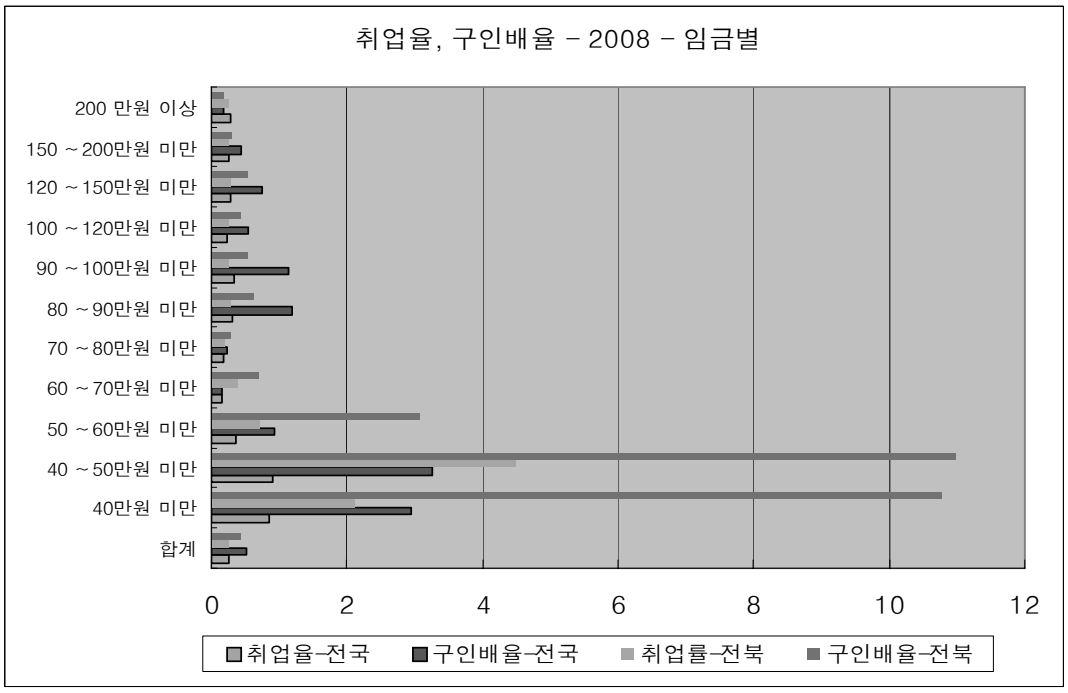
(2) 연령별

연령별로 보면 19세이하와 60세 이상에 대한 구인배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에 30-35세와 50-59세의 연령에 대한 구인배율이 높은 편이어서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30-35세와 50-59세의 연령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구직연령을 보면 19세이하의 구직이 가장 높아서 구인과 구직의 미스매치가 가장 심각한 연령대로 보인다.

연령별 구인 배율은 대체적으로 전국평균보다 낮은 값을 보여서 일자리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19세이하와 30-39세의 연령대에서 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50 세 이상의 경우에는 전북지역의 구인배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그 연령대에서는 일자리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취업율, 구인배율 - 2008년 - 연령별
60세 이상
50~59세
40~49세
30~39세
20~29세
19세 이하
계
0
0.2
0.4
0.6
0.8
1
취업율-전국
구인배율-전국
취업률-전북
구인배율-전북

(3) 임금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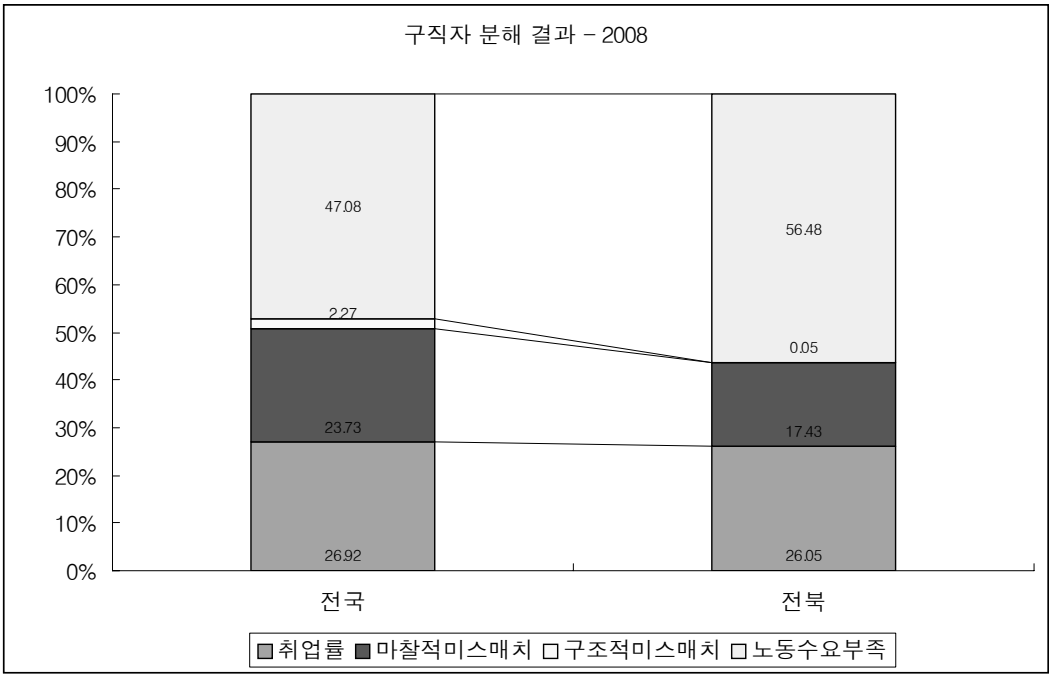

취업율, 구인배율 - 2008 - 임금별
200 만원 이상
150 ~200만원 미만
120 ~150만원 미만
100 ~120만원 미만
90 ~100만원 미만
80 ~90만원 미만
70 ~80만원 미만
60 ~70만원 미만
50 ~60만원 미만
40 ~50만원 미만
40만원 미만
합계
0
2
4
6
8
10
12
취업율-전국
구인배율-전국
취업률-전북
구인배율-전북

임금별 구인현황을 보면 **60만원 미만의 임금구간에서** 구인배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220-240만원과 240만원 이상**의 구인배율이 높아서 기업들의 제시임금형태가 약간은 특이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취업률의 경우도 해당구간에서 전국평균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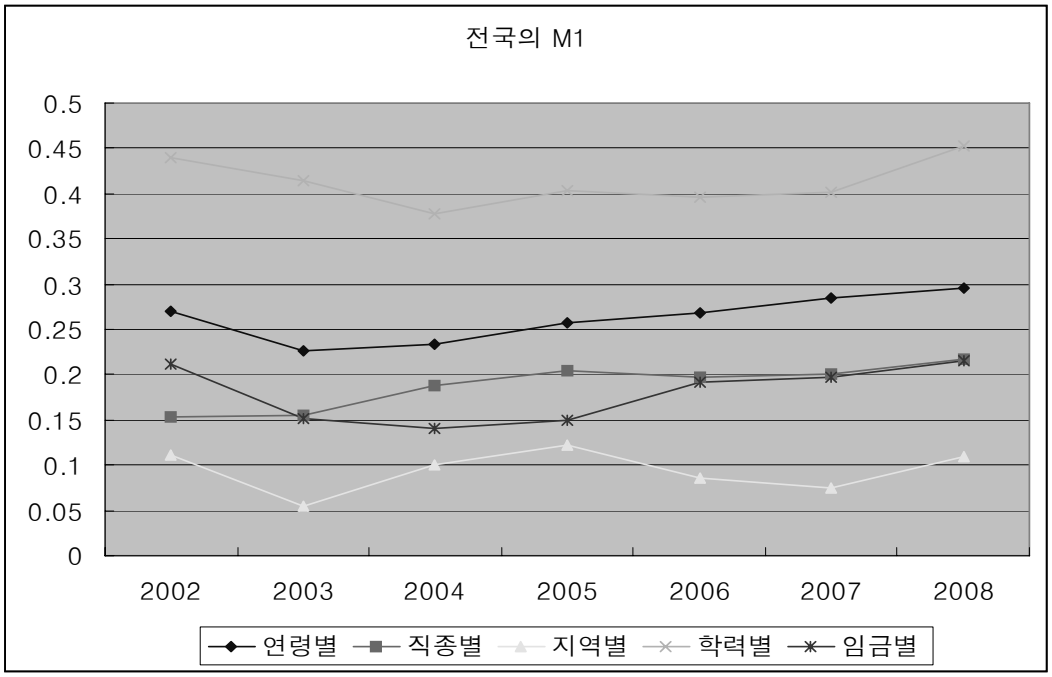
2.4 구직자 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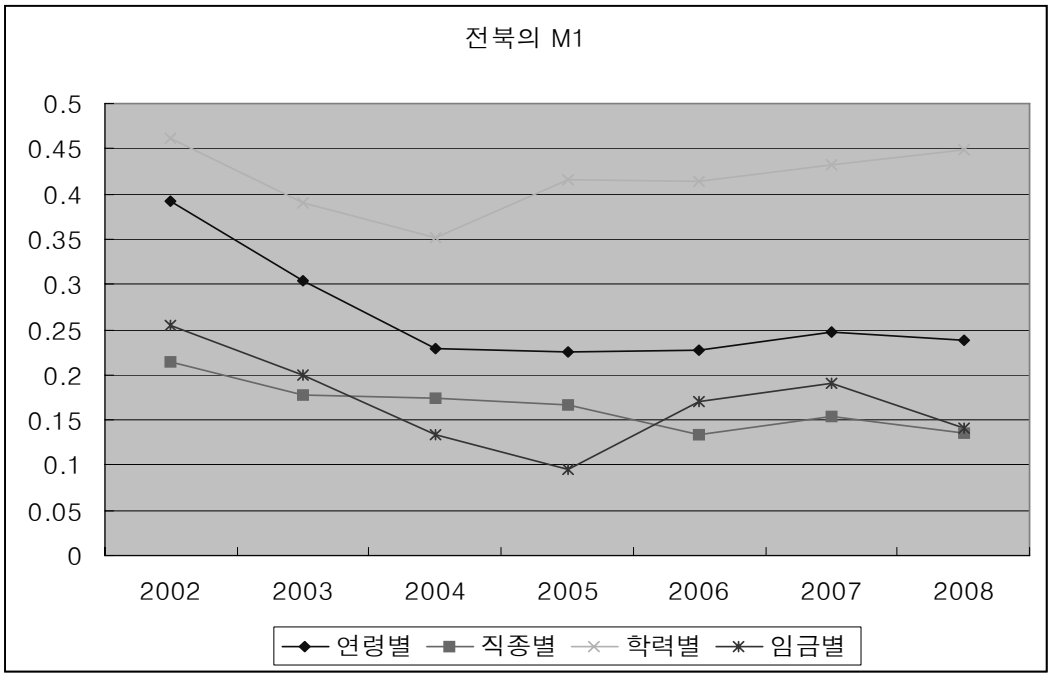
2008년도 구직자들을 분해하여 보면 전북지역은 실업의 원인으로 **노동수요 부족의 정도**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마찰적 미스매취이다. 구조적 미스매취는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적은 편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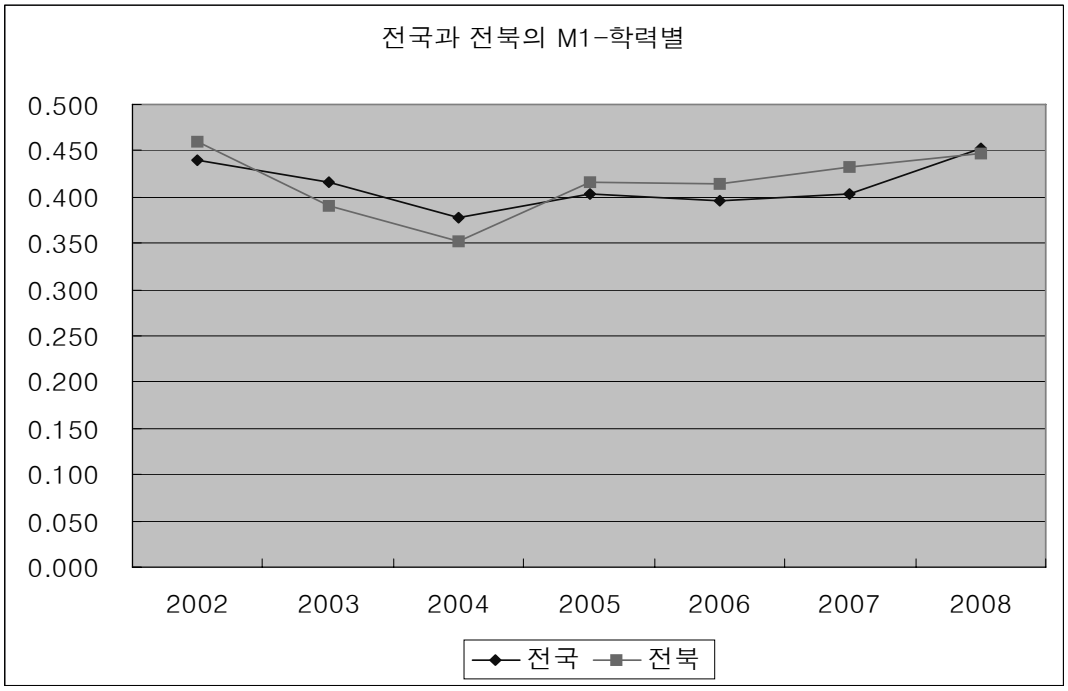
〈표 5〉 구직자 분해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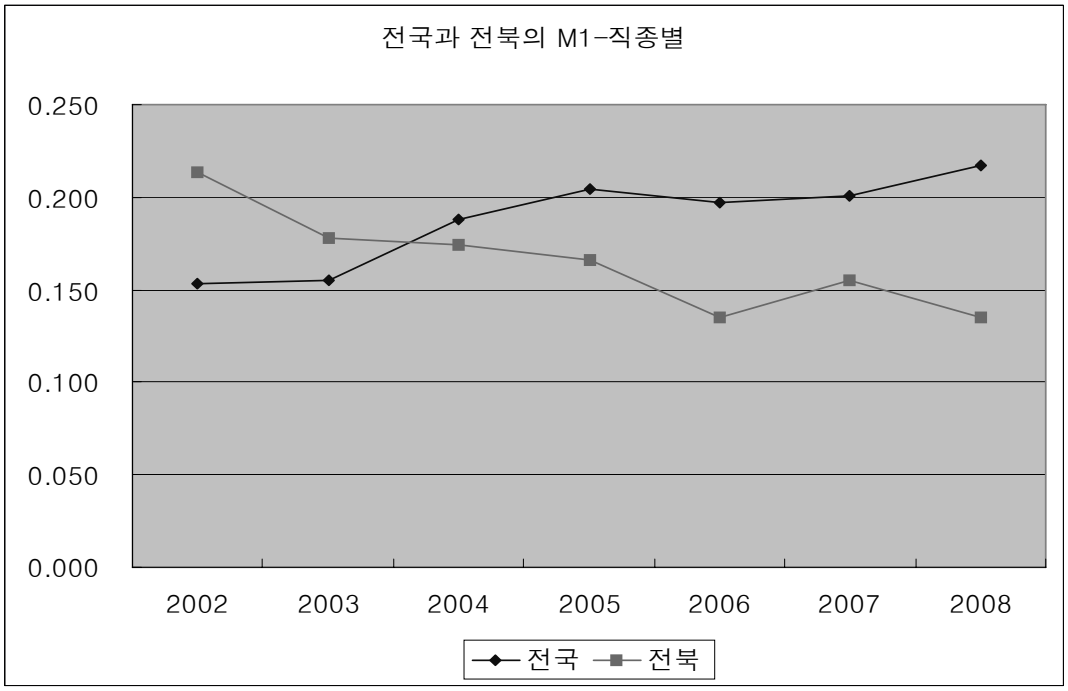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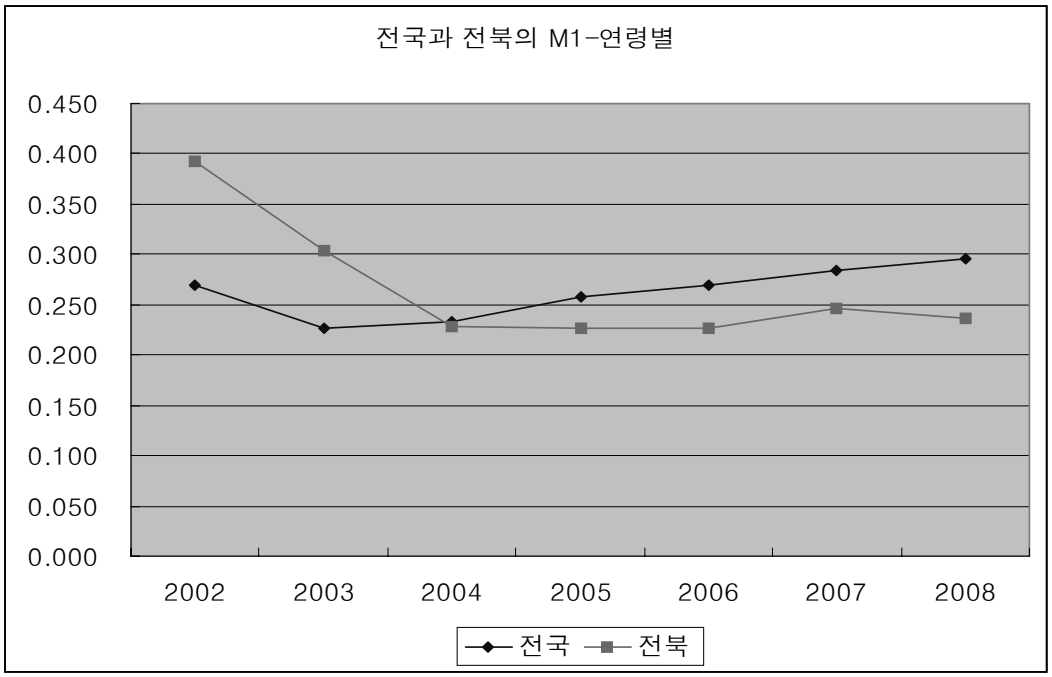
2.5 전북지역 Mismatch 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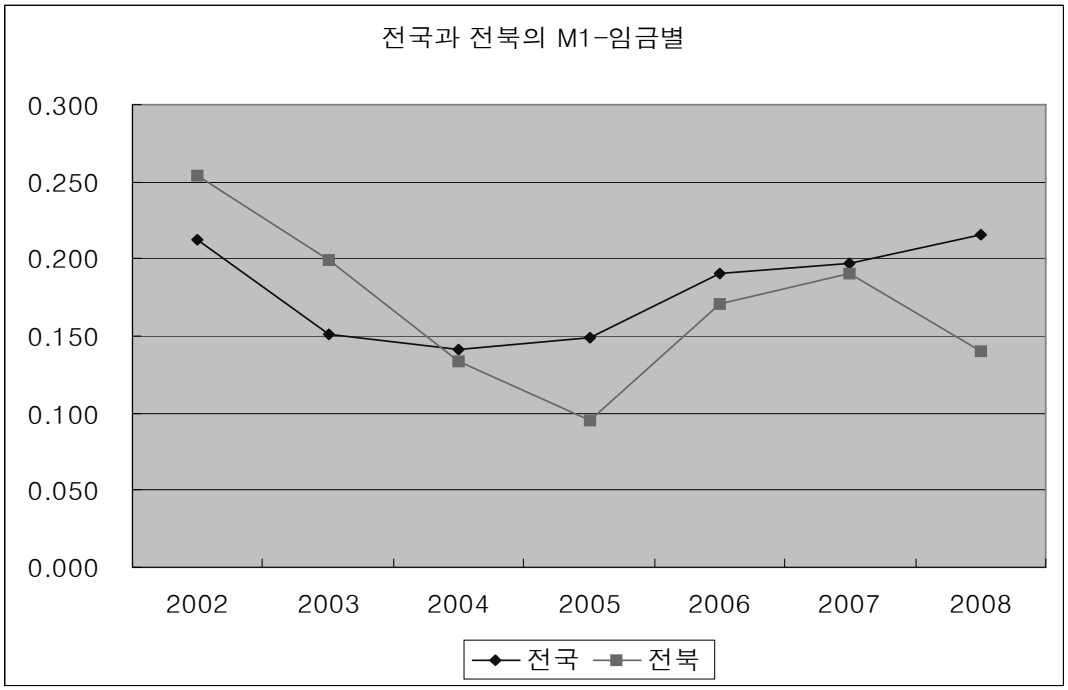





전국과 전북의 M1-학력별
0.500
0.450
0.400
0.350
0.300
0.250
0.200
0.150
0.100
0.050
0.0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국
전북


전국과 전북의 M1-직종별
0.250
0.200
0.150
0.100
0.050
0.0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국
전북


전국과 전북의 M1-연령별
0.450
0.400
0.350
0.300
0.250
0.200
0.150
0.100
0.050
0.0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국
전북


전국과 전북의 M1-임금별
0.300
0.250
0.200
0.150
0.100
0.050
0.00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국
전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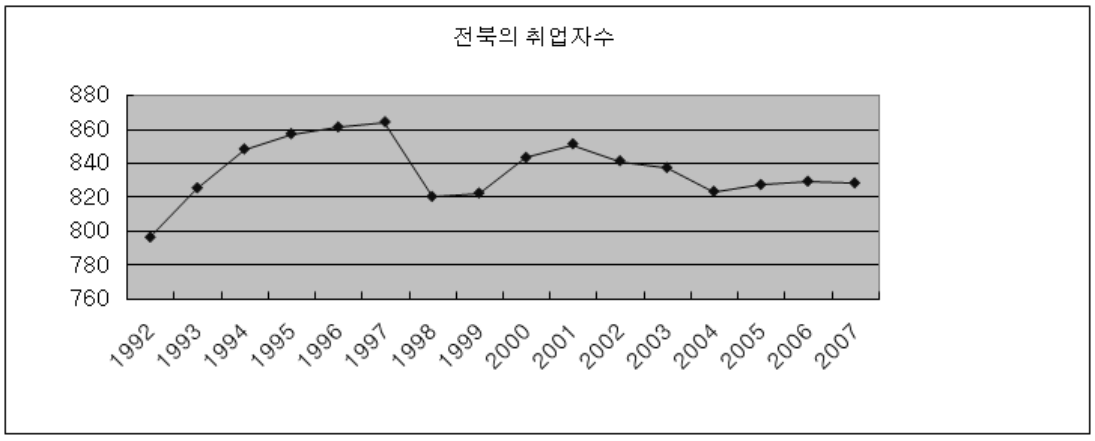
2.6 취업탄력성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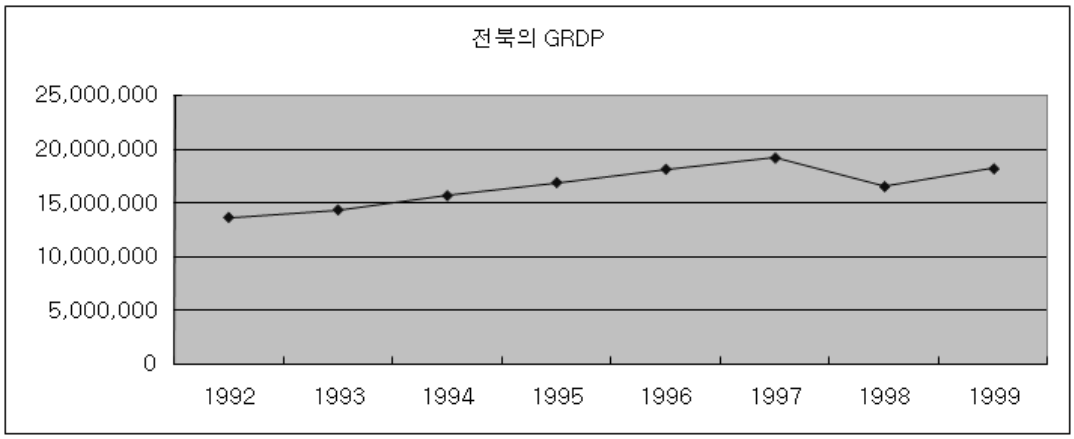
〈표 6〉 취업탄력성 : 전국

취업탄력성	92-95	96-00	01-05	06-08
계	0.29	0.09	0.30	**0.25**
농림어업	15.67	-0.79	-6.79	-0.53
광공업	0.29	0.65	-0.28	**0.71**
제조업	-0.11	-0.22	-0.02	-0.20
건설업	0.54	3.38	0.99	-5.51
도소매, 음식숙박업	0.92	0.09	-0.28	-0.22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	0.46	-1.64	1.57	**1.40**

〈표 7〉 취업탄력성 : 전북

취업탄력성	92-95	96-99	00-04	05-07
계	0.32	-17.75	-0.17	**0.01**
농림어업	-2.04	-0.51	-2.44	**0.52**
광공업	0.04	3.38	-0.19	-0.21
제조업	0.22	-3.01	0.38	-0.36
건설업	0.08	1.67	-1.44	-0.42
도소매, 음식숙박업	0.70	0.02	-1.38	**0.14**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	0.60	1.50	2.15	**0.43**





Ⅲ. 결어 및 정책제안[1)]

3.1 일자리창출 정책

가. 장기적인 정책

장기적인 정책은 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새로운 기업유치와 기존기업들의 투자확대에 대한 유인 및 지원대책이다. 최근에 일자리 창출이라는 표현에 익숙해져서 정책을 통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간단하거나 또는 지극히 당연한 것과 같은 인상을 갖는 경향이 있지만 경제학의 기본원리는 일자리는 정책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력에 대한 수요는 기본적으로 상품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파생수요"라는 점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다 정확한 표현은 "일자리 창출"아니라 "상품수요창출" 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자리 창출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정책에 의하여 발생하는 부수적인 정책으로 이해해야 하고, 성장정책에 대한 논의는 많이 되어있고 최근의 한국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경제의 체질을 바꾸어서 성장잠재력을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전북경제의 성장정책도 큰 틀에서 동일한 관점에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전북지역도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경제의 성장률을 상향시키는 정책을 일자리창출의 기본적인 정책으로 추구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외부기업을 유치하고 지역내에 있는 기업들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병행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어느 한 경제의 성장에 필요한 것은 자본과 노동의 확충이다. 전북도에서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1) 이 절에서 제시된 자료에 대한 <표>들은 노동부의 연구용역인 "전북지역 청년고용정책 (송영남, 2009)" 에서 인용되었음.

투자유치는 자본을 확충시키는 정책이다. 그러한 정책의 배경은 전북지역은 상대적으로 자본이 부족하고 따라서 자본의 축적이 지역을 발전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하지만 지본의 축적은 새로운 기업의 유치외에도 기존에 있는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어느 선택이 보다 효율적인 지 검토가 필요하다. 일자리는 재화의 판매에서 파생하는 것이므로 도내 기업들이 보다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것은 기본적인 일자리 정책이다.

〈표 8〉 대학생이 원하는 청년 고용정책 1순위

(단위:명, %)

	전체		4년제 대학		전문대학	
	빈도	%	빈도	%	빈도	%
양질의 일자리 창출	326	42.8	245	43.1	81	42.0
대기업의 청년층 고용 의무제 적용	167	21.9	122	21.4	45	23.3
인턴제 활성화	78	10.2	50	8.8	28	14.5
취업정보의 향상 및 적극적 제공	79	10.4	55	9.7	24	12.4
공적 고용서비스의 확대	66	8.7	55	9.7	11	5.7
대학의 구조조정	39	5.1	35	6.2	4	2.1
기타	7	0.9	7	1.2		0.0
합계	762	100.0	569	100.0	193	100.0

나. 단기적인 정책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여 단기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당위성에 대한 찬반이 있지만 이러한 일자리 창출의 긍정적인 효과는 소위 실업자들이 경험하는 **이력현상 (Hysteresis)**을 억제하는 사회적 편익이다.

Ⓐ 인력채용에 대한 혜택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기존기업들로 하여금 투자의 확대를 통하지 않고도 채용에 보다 적극적이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채용에 따른 보상을 통하여 노동비용을 절감시켜주는 방법이 가능하다. 최근에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채용시 세제 혜택을 주는 것

과 같은 세제감면 또는 직접적인 보상금 등과 같은 방법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 일자리 나누기

노동시간 감축을 통하여 일감을 나누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이미 주 5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간을 추가로 감축하여 일자리를 나누는 것은 대부분의 산업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부가 인위적으로 직접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일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 사회적 일자리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여 따라서 일자리의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보다 큰데 민간 시장에서는 사적인 편익이 사적인 비용보다 크지 않아서 만들어지지 않는 일자리를 말한다. 즉 시장이 실패한 영역에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의 실패를 보정하는 것으로 정부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자연스러운 영역이다.

Ⓓ 일시적인 일자리

희망근로 또는 공공근로, 행정인턴과 같은 임시적인 일자리정책들로 정책에 대한 찬반이 있지만 임기응변이지만 공적인 부조성격을 갖는 정책으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경우 이력현상 억제라는 편익이 있을 수 있다.

3.2 일자리 결합정책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구인과 구직자들간의 결합을 촉진하는 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빈 일자리와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들간의 거래를 쉽게 하여 소위 미스매칭(Mismatching)의 정도를 감소시키는 정책이다.

가. 장기적인 정책

Ⓐ 대학정원과 학력별 임금격차

현재 청년들의 일자리문제가 고졸보다는 대졸자의 일자리문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지나치게 높은 대학진학률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인배율이나 취업률 통계에서도 확인 되

지만 현재 80%가 넘는 대학진학률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중요한 원인이다. 결과적으로 대졸자의 수는 대졸자를 필요로 하는 일자리의 수보다 많고 일자리 미스매칭의 원인이다. 대학 진학률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입학정원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동시에 학력별 임금격차가 축소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높은 대학 진학률은 한국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에 기초하겠지만 노동시장에서 학력별 임금격차 및 차별이 크다는 점도 대학 진학률을 발생시키는 원인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학력별 임금격차나 차별이 완화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임금수준이 학력보다는 능력 및 생산성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노동시장 및 각 기업에서 공정한 성과체계가 정립되는 것이 필요하다. 요약하면 대학 정원조정과 동시에 학력별 임금차이가 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고용안정추구와 사회안전망

청년층의 근로자들이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자리를 기피하는 이유는 임금의 수준이 맞지 않거나 해당일자리에서 고용이 불안하거나 등의 문제인 것이라는 점은 그간의 많은 연구에서 확인이 되었다. 따라서 정책의 핵심은 그러한 점들을 해소시켜주는 것이다.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않은 원인은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는 해당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퇴출되는 가능성이다. 이러한 경우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항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업이 퇴출되지 않아도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기업의 경영상의 다른 계획 때문에 일부 근로자를 정리해고하는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는 소위 정리해고제가 도입이 되기전에는 한국의 노동시장에서는 보기 어려웠고 따라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그러한 해고에 대한 두려움이 적은 편이었다. 하지만 정리해고제가 도입이 되고 근로자들은 취업중에 기업이 퇴출이 되지 않아도 수시로 정리해고가 되는 모습을 보아왔다. 지나친 고용의 경직성이 주는 비효용 때문에 정리해고제가 도입이 되었지만 한국의 근로자들은 고용안정에 대한 선호가 강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른 형태의 고용안정책을 도입하여 고용안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필요하였다. 소위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그러한 안전망이 부족하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왔다. 그 결과 구직자들은 보다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직장을 회피하게 되어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통하여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여 일자리를 잃어버려도 최소한의 생계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청년구직자들로 하여금 중소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취업을 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고 미스매칭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도록 하는 것외에 전북지역에서 가칭 “지역실업보상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지역내에 취업한 근로자들이 실

직되는 경우에 중앙정부의 고용보험제도외에 보완적으로 안정망을 제공해주는 개념이다. 현재 고용보험제는 구직자들로 하여금 고용불안이 내재해 있는 일자리를 선뜻 받아들이도록 하는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재원조달은 다양하겠지만 도내 취업근로자들로부터 조달함으로서 자발적인 보험의 형식을 갖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즉, 자신의 실직시 보험금을 받고 그에 대한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불안정한 고용과 같은 나쁜 근로조건에 대한 보상임금격차의 작동기능이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노동조합의 활성화 등이 그러한 작동기능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저임금업종과 근로조건이 열악한 근로현장의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활동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표 9〉 중소기업 회피 이유 1

(단위:명, %)

	전체		4년제 대학		전문대학	
	빈도	%	빈도	%	빈도	%
낮은 임금 및 복리후생	286	44.0	213	43.4	73	45.9
열악한 근무환경	61	9.4	45	9.2	16	10.1
사회적 이미지	40	6.2	25	5.1	15	9.4
불안정한 일자리	165	25.4	126	25.7	39	24.5
장래성이 없음	91	14.0	76	15.5	15	9.4
기타	7	1.1	6	1.2	1	0.6
합계	650	100.0	491	100.0	159	100.0

〈표 10〉 전국과 전북의 실업자수

(단위 : 천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국 15-29세	430	413	361	401	412	387	364	328	315	347
전북 15-29세	16	16	13	12	13	9	11	7	8	8

자료 : 통계청

Ⓒ 지역주거환경의 개선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내의 기업에 취업을 하고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지역경제의 성장에 필요하다는 것은 새롭게 제기할 필요가 없다. 아래의 설문조사에 나타난대로 상당수의 대학생이 수도권을 근무지로 선호하는 데 그 이유는 좋은 생활환경이라고 답하였다. 그 생활환경이라는 것은 매우 다양한 것을 포함하겠지만 전북의 지자체가 개선을 위하여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일자리 및 실업문제해결에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다.

〈표 10〉 대학생이 선호하는 근무지 및 기업

(단위 : 명, %)

	전체		4년제 대학		전문대학	
	빈도	%	빈도	%	빈도	%
수도권	360	47.6	259	45.6	101	53.4
전북 지역	397	52.4	309	54.4	88	46.6
합계	757	100.0	568	100.0	189	100.0

〈표 11〉 수도권 선택 이유 1

(단위 : 명, %)

	전체		4년제 대학		전문대학	
	빈도	%	빈도	%	빈도	%
좋은 생활환경	194	52.0	143	54.2	51	46.8
장래의 비전	114	30.6	81	30.7	33	30.3
사회적 인지도	12	3.2	7	2.7	5	4.6
근무환경	42	11.3	28	10.6	14	12.8
기타	11	2.9	5	1.9	6	5.5
합계	373	100.0	264	100.0	109	100.0

나. 단기적인 정책

Ⓐ 고용지원서비스 확대: 취업알선성과측정

1998년 경제위기이후에 정부가 노력해왔지만 공공고용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구인-구직의 연결을 보다 쉽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서비스를 양적으로 또한

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검토할 수 있는 정책은 고용지원서비스 담당자들에게 취업알선이 양적 및 질적으로 성공적일 때 그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주로 고용지원센터에서 제공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고용지원센터와 연결하여 그러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를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 학력 및 연령차별 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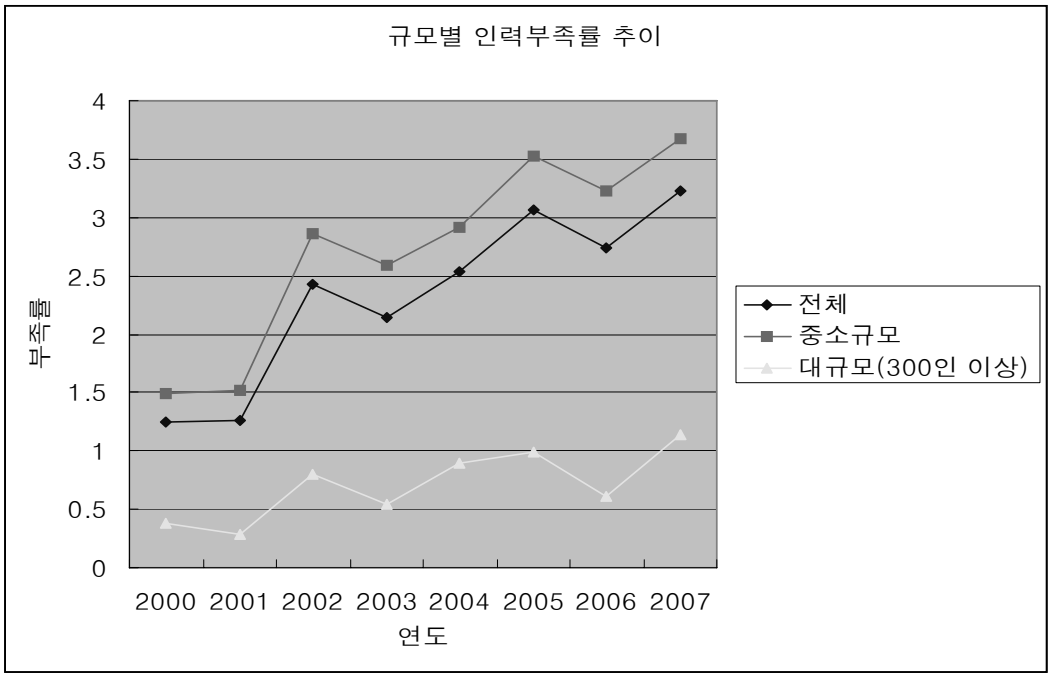
앞에서 미스매취의 분석결과를 보면 채용시에 학력차별이나 연령차별을 억제하거나 나아가서 금지시키면 일자리 결합이 더욱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사회적 합의나 제도적 정비를 통하여 고용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위에서 측정된 미스매취의 문제를 보면 연령 및 학력별 수급 불일치의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서 연령 및 학력차별을 완화시키거나 나아가서 금지시키는 것은 일자리결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이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3.3 물적자본(기업)과 인적자본의 유치: 구직난인가 구인난인가?

최근의 고용문제를 구직의 어려움으로만 보기보다는 구인의 어려움의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 아래의 전북전략산업에서의 부족근로자수를 보면 그 문제를 잘 시사하고 있다. 고용문제를 인력부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북지역에서 관심을 가져야하는 것은 기업유치라는 물적자본의 유치외에도 인적자본의 유치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다. 즉, "사람"의 유치에도 관심을 갖어서 전북지역에 인재가 모이도록 하는 것이 지역경제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그 결과 일자리가 더욱 만들어 지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요약하면 물적자본의 유치를 통한 성장경로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인적자본의 유치를 통한 성장과 그에 따른 물적자본의 유치경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표 12〉 산업별 인력부족 근로자 수(전북전략산업)

산업별	부족인원 수		전체 근로자 수		인력부족률 추정값
	조사값	**추정값**	표본	모집단	
MT	257	525	9,982	20,373	2.6
BT	96	427	3,117	13,880	3.1
기타	173	1,750	4,220	42,687	4.1
합계	526	2,702	17,319	76,940	3.5


규모별 인력부족률 추이
부족률
4
3.5
3
2.5
2
1.5
1
0.5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연도
전체
중소규모
대규모(300인 이상)

청년 일자리, 어떻게 할 것인가

2

강 영 숙 (교수, 군산대학교 사회복지과)

지정토론: **김 병 수** (이사, 전통문화사랑모임)
송 영 남 (교수, 전북대학교)

전북지역 청년층의 취업 및 노동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강 영 숙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yskang@kunsan.ac.kr

본 자료는 2009년 전북지역 고용포럼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한것임

2010-03-11

연구목차

1. 연구목적
2. 청년 노동시장 동향
3. 선행연구고찰
4. 연구방법
5. 분석결과
6. 결론

2010-03-11

1. 연구목적

◈ 첫째, 청년계층에 대한 고용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취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북 청년취업자들의 특성과 취업 내용을 살펴본다.

◈ 둘째, 고용된 청년취업자들은 어떤 노동이동 경로를 통해서 취업 전환을 하는지를 알아보고 노동이동(취업전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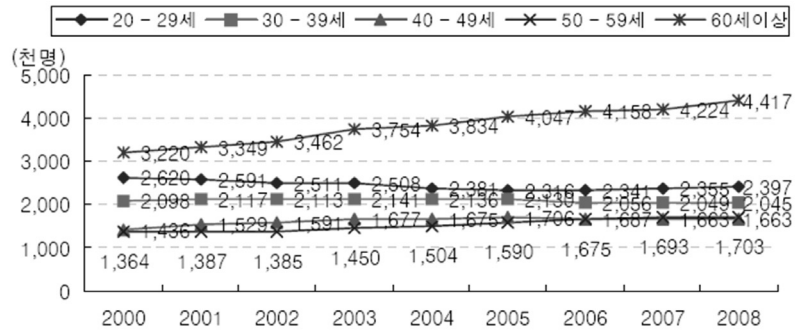
2010-03-11

2. 청년노동시장 동향

만 15-29세에 해당하는 청년실업률은 2008년 평균 7.2%로 전체 실업률 3.2%로 2배를 상회하는 기록을 남겼다. 취업자수 현황에 있어 청년층 가운데에서도 연령대를 다양하게 적용해보면 만15-29세의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25세-29세보다 만 20-24세 이상의 취업자 수 급감이 두드러졌다.

2010-0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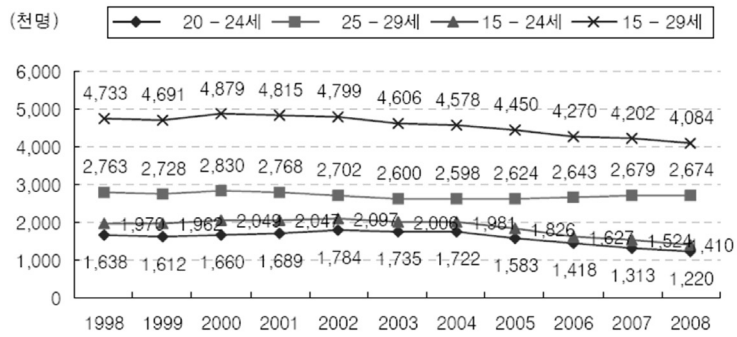
2. 청년노동시장 동향



[그림 Ⅰ-1] 연령대별 비경제활동인구 수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통계청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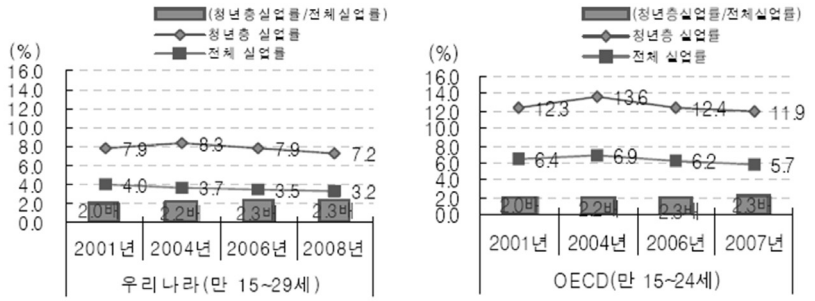
2010-03-11



[그림 Ⅰ-2] 청년 연령대별 취업자 수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통계청 KOSIS

2010-03-11



[그림 Ⅰ-3] 청년 실업률(우리나라와 OECD비교)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KOSIS, OECD통계자료(www.sourceoecd.org/databases)

2010-03-11

2. 청년 노동 시장 동향

◈ OECD 기준으로 청년 실업률을 계산했을 경우에도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보다 높다.

◈ 청년실업은 청년들의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실패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청년 노동력의 유휴화에 대해서 간과할 수 있다.

◈ 또한 청년노동력은 부양가족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중장년층에 비해서 쉽게 비경제 활동인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2010-03-11

3. 청년취업에 대한 선행연구

◈ 고용의 전환을 가장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노동이동 과정을 분석하고, 좀더 괜찮은 일자리나 또는 낮은 고용의 질로 추락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청년고용 또는 청년실업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최근까지는 경제위기 이후로 대표적인 사회적 배제 집단인 노인과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경제위기 이후 또 다른 불황을 겪게 되면서 청년실업이나 비정규직의 노동환경이나 노동이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010-03-11

3. 청년취업에 대한 선행연구

◈ 이병희(2003),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패널자료로 구성하여, 실업청년계층의 재취업 결정요인에 대해서 조사. 취업을 정규직 재취업, 비정규직재취업, 비임금근로 재취업 등 3가지로 구분하고, 인구사회학적특성(연령, 학력, 결혼상태), 직전직장의 변수(고용형태와 근로시간, 산업직종), 실직관련변수, 경력관련변수를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프로빗분석을 실시함

2010-03-11

3. 청년취업에 대한 선행연구

◈ 박우성,노용진(2001), 김기승, 구인회(2001)는 고용형태 및 고용의 질적인 변화를 종속변수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설명변수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 김교성, 반정호(2004)는 빈곤이행과 빈곤경험 고찰을 통해서 빈곤탈피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2010-03-11

3. 청년취업에 대한 선행연구

◈ 이상의 연구와는 달리 윤정혜(2007)는 청년층의 노동시장의 구조적 분석을 통해서 청년들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실태를 파악하였다. 최형아(2007)는 청년 임금변동를 중심으로 노동이동을 분석하였다.

2010-03-11

3. 청년취업에 대한 선행연구

◈ 반정호, 김경희, 김경휘(2005)는 노동이동의 유형을 안정형, 불안정형, 정규직가교형, 함정형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설명변수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무특성, 직업특성을 설명변수로 하여 연구를 하였다.

2010-03-11

3. 청년취업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개인의 심리사회적 특성, 직무특성, 직업특성을 설명변수로 설정하고, 반정호, 김경희, 김경휘(2005)에서 측정한 4가지 취업유형을 종속변수로 하여 전북지역 청년취업자의 노동이동 및 취업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010-03-11

4. 연구방법

1) 분석자료
2) 분석대상
3) 노동이동 및 취업에 대한 측정
4) 변수정의 및 측정방법

2010-03-11

1) 분석자료

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한 청년패널조사의 7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청년패널조사자료 중 7차 자료 만을 사용한 이유는 1-6차 자료는 전북 data가 변수가 코딩되어 있지 않아 별도 분석이 어려웠음)

2010-03-11

2) 분석대상

◈ 청년 패널조사는 만 15세에서 29세의 연령층에 초점을 맞춘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단위 패널조사로서 본 연구에 사용한 패널자료는 2007년 자료로 중학생 890명(8.72%)과 고등학생 2,509명(24.58%), 대학생 2,940명(28.81%), 대학원생 103명(1,00%), 취업자 2,128명(20.86%), 미취업자 1,636명(16.03%)으로 총 10,206명이다.

◈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41명과 미취업자 33명으로 총 74명으로 전체의 0.72%에 해당한다.

2010-03-11

3) 노동이동 및 취업형태에 대한 개념

◈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취업과 노동이동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 취업자와 비취업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할 필요가 있음(청년패널조사 분류 참조).

2010-03-11

3) 노동이동 및 취업형태에 대한 측정

취업자	· 학생이 아니면서 지난 1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는 사람 · 학생이면서 하루 종일 일하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 · 1주일에 18시간 이상 근로하는 무급가족종사자 · 졸업예정자 가운데 미리 취업한 사람 ·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가 아닌 취업을 한 사람
미취업자	· 가족이나 친척의 일을 무보수로 일주일에 17시간 이하로 일하는 사람 · 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 · 학교 휴학하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자(군입대 대기, 진학준비, 시험준비 등) · 재수생 및 특정 소속이 없는 자

주: 미취업자 유형의 비경제활동인구는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학생인구를 제외함

<자료출처: 2001-2007의 청년패널 기초자료분석보고서>

2010-03-11

		구분	정의
노동		취업자	수입을 목적으로 일정한 사업체에 full-time으로 일한경우, 아르바이트는 제외
이동		미취업자	조사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 직장(일거리)이 없었던 경우
	임금 노동자	정규직	특정의 고용계약이 없거나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이 설정된 경우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재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경우
고용형태		비정규직	'정규직'이외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비정규직으로 판단
(취업형태)	비임금 노동자	종업원을 둔 고용주	한 사람 이상의 유급종업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종업원이 없는 고용주	유급종업원이 없이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 함께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직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무급가족종사자	가족(혹은 친지)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주당 18시간 일하는 경우

<자료출처: 2001-2007의 청년패널 기초자료분석보고서>

2010-03-11

4) 변수 및 측정방법: 종속변수

		변수명	변수설명	속성 및 단위
종속변수	노동이동 1)	ST(stable type)	정규직(첫직장) --→ 정규직(현직장)	ST(1)
		UT(unstable type)	정규직(첫직장) --→ 비정규직(현직장)	UT(2)
		BT(bridge type)	비정규직(첫직장)--→ 정규직(현직장)	BT(3)
		TT(trap type)	비정규직(첫직장) --→ 비정규직(현직장)	TT(4)

1) 노동이동변수는 반정호 외(2005)의 측정차원을 이용하였음

2010-03-11

4) 변수 및 측정방법: 종속변수

- ST(stable type): 조사 시점에서 최초 직장에서부터 현재의 직장까지 안정된 고용의 형태를 유지-안정형
- UT(unstable type): 조사시점에서 최초의 직장에서는 정규직이었으나 현재의 직장에서는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를 유지-불안정형
- BT(bridge type): 조사시점에서 최초의 직장에서는 비정규직이었으나 현재의 직장에서는 정규직의 고용형태를 유지-정규직가교형
- TT(trap type): 조사시점에서 최초의 작에서도 비정규직있고 현재의 직장에서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유지-함정형

2010-03-11

4) 변수 및 측정방법: 독립변수

		변수명	변수설명	속성 및 단위
독립변수	인구사회학적 변수	성 연령 교육수준 가구원수 가구주여부 결혼상태	연구대상자의 성별 만나이 교육년수 가구원수(원가족/분가가족) 연구대상자 가구주여 부 연구대상자 결혼상태	남=1, 여=2 세 년 명 가구주=1, 비가구주=0 기혼=1, 미혼=0
	심리적-사회적 변수	구직동기 직업선택가치관	자아존중과 자기평가 정도 직업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의 확립도	1점-6점 1점-5점
	직무관련변수	직무만족 직무수준의 적절성 취업경로공식화	현 직장직무 만족도 현 직장의 직무적절성 현 직장 취업경로 공식화	1점-5점 1점-5점
	직업관련변수	근무시간 직장규모 직장형태 평균임금	현 직장의 주당 근무시간 현 직장의 종업원수 정부관련기관 vs 기타 월 평균소득	시간 1-9점* 정부기관=1, 기타=0 만원(월평균)

2010-03-11

5) 분석방법

◈ 첫째,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청년층의 노동이동 및 취업형태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술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 둘째, 전라북도 청년층의 노동이동 및 취업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항 로짓분석(multinominal logit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2010-03-11

5. 분석결과

1) 전북 청년취업자들의 고용형태
2) 전북 청년취업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고용형태
3) 전북 청년취업자들의 노동이동 상황
4) 전북 청년취업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노동이동
5) 전북 청년취업자들의 노동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10-03-11

1) 전북 청년취업자들의 고용형태

		구분	명(%)
	정규직	상용직	53729 (52.3)
고용	비정규직	임시직	6676 (35.7)
형태	비임금	자영업자	7011(6.8)
	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5390(5.2)
		합계	102807(100.0)

사례수는 가중치에 의해 가중된 사례수

2010-03-11

◈ 전북 청년취업자들의 고용형태를 살펴본 결과 정규직이 52.3%, 비정규직이 35.7%로 나타났다. 정규직은 전국기준 50.3%(통계청, 2003)보다 조금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2010-03-11

2) 전북 청년취업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전체 수(%)
성별	남	30140(62.1)	11823(24.4)	3568(7.4)	2982(0.1)	48513(100.0)
	여	23589(43.4)	24853(45.8)	3444(6.3)	2408(6.3)	4294(100.0)
연령(만)	20-23	6599 (39.3)	7214(43.0)	0(.0)	2982(17.8)	16795(100.0)
	24-27	20480(50.9)	12771(31.7)	7011(17.4)	0(.0)	40262(100.0)
	28-31	26651(58.3)	16691(36.5)	0(.0)	2408(5.3)	45750(100.0)

사례수는 가중치에 의해 가중된 사례수

2010-03-11

2) 전북 청년취업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전체 수(%)
교육수준	고졸이하	0(.0)	2982(100.0)	0(.0)	0(.0)	2982(100.0)
	고졸	28878(49.5)	22910(39.3)	3568(6.1)	2982(5.1)	58338(100.0)
	전문대졸	18685(64.6)	7837(27.1)	0(.0)	2408(8.3)	28930(100.0)
	대졸	6167(64.2)	0(0.0)	3444(35.8)	0(.0)	9611(100.0)
	석사이상	0(.0)	2947(100.0)	0(.0)	0(.0)	2947(100.0)

사례수는 가중치에 의해 가중된 사례수

2010-03-11

2) 전북 청년취업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전체 수(%)
결혼상태	미혼	31647(42.4)	34231(45.8)	3444(4.6)	5390(7.2)	74712(100.0)
	기혼	22082(78.6)	2445(8.7)	3568(12.7)	0(.0)	28095(100.0)
가구주	가구주	27175(80.6)	2960(8.8)	3568(10.6)	0(.0)	33703(100.0)
	비가구주	26555(38.4)	33716(48.8)	3444(5.0)	5390(7.8)	69105(100.0)
자녀수	없음	8325(100.0)	0	0	0	8325(100.0)
	1명	8402				
	2명	2408(40.3)	0	3568(59.7)	0	5976(100.0)
	3명	2947(54.7)	2445(45.3)	0	0	5392

사례수는 가중치에 의해 가중된 사례수

3) 전북 청년취업자들의 노동이동

구분	상태변화	명	(%)
ST(stable type)안정형	정규직 ---→ 정규직	12195	(11.9)
UT(unstable type)불안정형	정규직 ---→ 비정규직	15114	(14.7)
BT(bridge type)가교형	비정규직 ---→ 정규직	41534	(40.4)
TT(trap type)함정형	비정규직 ----→ 비정규직	33964	(33.0)
전체		102807	(100.0)

사례수는 가중치에 의해 가중된 사례수

2010-03-11

4) 전북 청년취업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노동이동

		ST(안정형)	UT (불안형)	BT(가교형)	TT(함정형)	전체 수(%)
성별	남	12195(25.1)	2947(6.1)	17945(37.0)	15426(31.8)	48513(100.0)
	여	0(.0)	12167(22.4)	23589(43.4)	18539(34.1)	54295(100.0)
연령(만)	20-23	0(.0)	0(.0)	6599(39.3)	10196(60.7)	16795(100.0)
	24-27	9248(23.0)	9207(22.9)	11232(27.9)	10575(26.3)	40262(100.0)
	28-31	2947 (6.4)	5907(12.9)	23704(51.8)	13193(28.8)	45751(100.0)
교육수준	고졸이하	0(.0)	0(.0)	0(.0)	2982(100.0)	2982(100.0)
	고졸	12195(29.9)	15114(25.9)	16682(28.6)	14346(24.6)	58337(100.0)
	전문대졸	0(.0)	0(.0)	18685(64.6)	10246(35.4)	28931(100.0)
	대졸	0(.0)	0(.0)	6167(64.2)	3444(35.8)	9611(100.0)
	석사이상	0(.0)	0(.0)	0(.0)	2947(100.0)	2947(100.0)

사례수는 가중치에 의해 가중된 사례수

2010-03-11

4) 전북 청년취업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노동이동

		ST(안정형)	UT (불안형)	BT(가교형)	TT(함정형)	전체 수(%)
결혼상태	미혼	9248(12.4)	15114(20.2)	22399(30.0)	27952(37.4)	74713(100.0)
	기혼	2947(10.5)	0(.0)	19135(68.1)	6013(21.4)	28095(100.0)
가구주	가구주	8732(25.9)	2960(8.8)	18443(54.7)	3568(10.6)	33703(100.0)
	비가구주	3463(5.0)	12154(17.6)	23091(33.4)	30397(44.0)	69105(100.0)

사례수는 가중치에 의해 가중된 사례수

2010-03-11

4) 전북 청년취업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노동이동

		ST(안정형)	UT (불안형)	BT(가교형)	TT(함정형)	전체 수(%)
자녀수	없음	0(.0)	0(.0)	8325(100.0)	0(.0)	8325(100.0)
	1명	0(.0)	0(.0)	8402(100.0)	0(.0)	8402(100.0)
	2명	0(.0)	0(.0)	2408(40.3)	3568(59.7)	5976(100.0)
	3명	2947(54.7)	0(.0)	0(.0)	2445(45.3)	5392(100.0)

사례수는 가중치에 의해 가중된 사례수

2010-03-11

5) 전북 청년취업자들 의 노동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형1

ST(기준)	BT(가교형)		TT(함정형)	
	B(S.E.)	Exp(B)	B(S.E.)	Exp(B)
Intercept	-.787(1038.999)		20.548(584.455)	
성(남성)	-2.110(3375.373)#	.121	18.332(3426.487)#	91545739.107
연령	-20.671(4081.866)#	1.054E-09	.742(4101.477)	2.100
교육연수	-22.083(6159.240)#	2.567E-10	-61.197(3728.675)#	2.644E-27
자녀수	25.016(3539.518)	7318982888 3.013	-38.047(3483.272)#	2.994E-17
모형적합도	Chi-square 46527.659***	(df=12)	-2 Log likelibood	46527.659

#<.1, *p<.05, **p<.01, ***p<.001

2010-03-11

5) 전북 청년취업자들 의 노동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청년취업자의 노동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청년취업자의 일반적 특성을 투입하여 모형1을 구성하고, 추가적으로 심리사회적 변인을 투입하여 모형 2을 구성하고, 마지막으로 직무 및 직업 변수를 투입하여 모형 3을 구성하여 각 단계별로 투입하였다. 그러나 모형 1을 제외하고는 모형2와 모형3은 유효한 케이스가 없어 추정을 할 수가 없었다.

2010-03-11

5) 전북 청년취업자들 의 노동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결과해석

◈ 전북지역 청년취업자의 노동이동 유형은 4가지 유형(ST, UT, BT, TT)로 이중 ST를 기준 변수로 정하고 나머지 세변수는 기준변수로 투입되었다. 먼저 ST와 BT의 경우연령이 낮을 수록, 교육 년수가 적을 수록, 여성일 수록, BT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ST와 TT의 경우에는 남성이고, 교육연수가 낮을 수록, 자녀수가 적을 수록 TT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03-11

5. 결론

◈ 2007년 청년패널자료중 전북지역청년취업자를 중심으로 노동이동, 취업형태의 특성과 노동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 먼저, 고용형태에서는 교육수준이 낮을 수록, 또는 고학력자일 수록 비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이동하는 확률이 높았다.

2010-03-11

5. 결론

- 특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노동이동을 하는 가교형이 46.4%로 나타나 최근의 청년층의 노동이동경로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청년들이 오랜 시간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으로 취업과정은 또다른 취업과정의 연장이라는 측면에서 인력의 유휴화라고 볼 수있다
- 비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이동하는 함정형도 33.0%로 나타나 이들이 비정규직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맞춤형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0-03-11

5. 결론

- 다항로짓분석결과, 여성일수록(BT, 남성의 경우는 TT형), 교육수준이 낮을 수록, 자녀가 없을 경우에,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 가교형이나 함정형에 빠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상의 결과를 중심으로 고졸실업자를 대상으로는 직업훈련을 병행한 진로지도가 필요하며, 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는 취업자의 교육수준과 직업수준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며 이에 산학과 관학간의 상호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할 것이다.

2010-03-11

참고문헌

강철희, 유정아(2004), "재취업자의 고용의 질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0(1): 83-116.

김교성, 반정호(2004), "고용형태 및 빈곤경험이 빈곤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18: 31-54.

김유선(2001), "2000년 노동시장: 비정규직 임금 연속 하락", 노동사회, 53.

반정호, 김경희, 김경휘(2005), "청년취업자의 노동이동 및 고용현태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3):73-103.

윤정혜(2007),"청년층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징", 중앙정보고용원.

최형아(2007),"청년층 임금변동에 관한 연구", 중앙정보고용원

2010-03-11

참고문헌

조경욱 외(2008), "전라북도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성별 영향분석, 전북발전연구원

한국고용원(2009), "2007년 청년패널 기초분석보고서", 한국고용원

한국고용원(2009), "2007년 청년패널자료", 한국고용원

2010-03-11